

# 온라인 무안연꽃축제, 집에서 즐기세요

### 18일부터 5일간 공연·체험프로 '연꽃편지'·버스킹·쿠킹클래스 유튜브·축제 홈페이지 통해 중계

무안군이 여름철 대표축제인 제24회 무안연꽃 축제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한다.

무안연꽃축제는 10만여 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회산백련지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로 부터 호응을 얻어 왔다.

올 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유튜브 채널(무안연꽃TV)과 축제 홈페이지(www.무안연꽃축제.com) 등 축제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회산백련지 주무대에는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무관중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

그램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동창, 향우 등 그리운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고향의 소식을 전하는 '무안에서 온(on) 연꽃편지'가 진행된다.

군대에 입대한 아들, 초등학교 동창생들, 폭염 속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자녀,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등 30팀 7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유튜브로 사연을 전한다.

또 김동명, 현진우, 박주희가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과 무안의 대표 농특산품인 연근과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를 이원일 셰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배우는 연꽃쿠킹클래스가 진행된다.

아름다운 회산백련지를 배경으로 하는 버스킹 공연과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진행되는 달빛음악회, 다산을 상징하는 연꽃의 의미를 살려 예비맘을 대상으로 태교에 좋은 음악과 육아정보를 알려주는 태교음악회, 청소년들을 위한 틴틴페스티벌, 국민 참여로 만드는 연꽃야요제 등도 펼쳐진다.

이 외에도 한지 등 키트를 다채롭게 꾸미고 코로나19 극복과 각자의 소망메시지를 담아보는 백련

등 만들기, 폼바키트를 배송하면 참가자가 옷을 만들어 입고 폼바영상을 따라해 보는 폼바체험도 누구나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축제기간 중에는 라이브커머스도 4회 운영해 고구마, 양파잼, 잡곡세트 등 무안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고구마 수확철을 맞아 21일에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이원일 셰프가 직접 쇼호스트로 나서 무안 핫고구마를 이용한 요리법도 알려주고 판매도 할 예정이다.

군은 연꽃축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개설하고 축제개최 전 유튜브 구독과 댓글 이벤트를 운영해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무안연꽃축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황토갯벌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무안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부족하였던 단점이 아쉬웠다"면서 "이번 연꽃축제는 온라인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영암군 버스터미널 직영...사업자 폐업 신청

영암군이 경영악화에 직면한 영암버스터미널(사진)사업자의 폐업 신청에 따라 최근 최종 폐업을 수리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직영한다.

영암군의 관문인 영암버스터미널은 영암읍 남풍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합실, 매표실, 정류장, 주차장, 상가 등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버스 이용객 감소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운영을 포기했다. 군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버스터미널 시설을

임차했으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관리, 매표, 정소 등 직원 5명을 고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낡고 노후화된 대합실과 화장실 등 대청소를 실시하고 버스 주차장 플랫폼과 터미널 정류장의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퇴색된 이정표와 안내판 등을 교체하는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전남에서 최고의 공영버스터미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명량해상케이블카 이달말 개통...하늘에서 만나는 명량대첩 감동

### 캐빈 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

"하늘에서 만나는 명량대첩, 감동의 울돌목 회오리를 직접 느껴 보세요."

해남과 진도에 해협에 들어선 명량해상케이블카가 8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캐빈 설치를 완료한 후 종합시운전에 돌입했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역사의 현장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카이다.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해협 상공 약 1km의 길이에 10인승 캐빈 총 26대(크리스탈 캐빈 13대)로 제작됐다. 총사업비는 360여억원이다.

케이블카가 개통하면 막바지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국내 여름 여행지 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은 예상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8일 "승객이 탑승했을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대비해 대응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세부 점검을 완료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종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과 진도 사이에 길이 960m로 설치된 명량해상케이블카.

<해남군 제공>

## 완도군 폭염 대비 어르신 보호대책 추진

완도군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월 말 기준 1만6393명으로 전체 군민의 약 33%다.

이 가운데 장기 요양 방문 서비스 885명, 노인 맞춤 돌봄 1717명, 독거노인 110명, 기타 157명 등 총 2869명을 폭염 대비 안부 살피기 보호 대상

자로 지정했다. 주 5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잠시 휴관 중인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도사 23명이 수시로 안부를 살핀다.

노인 돌봄 요원에겐 혹서기 돌발 상황 발생에 대

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권역별로 교육도 했다.

맞춤 돌봄 어르신 1000 명에게 쿨 스킨도 지원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1700명에 대해 폭염 대비 냉방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선풍기가 없거나 고장이 난 100세대에 선풍기를 지원했다.

안봉일 완도군 복지행정국장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 노을전망대 팽이갈매기 형상 조형물

노을 지는 풍경이 으뜸인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전망대에 이색 조형물(사진)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노을전망대 중앙에 칠산도(七山島) 상징인 천연기념물 제389호 팽이갈매기 날개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비상하는 날갯짓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의 작품명은 '끝없는 사랑(Endless Love)'이다.

높이 3.6m, 폭 3.2m의 크기로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백년해로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 제작했다.

조형물의 소재인 팽이갈매기는 칠산도가 주요 번식지이다. 이 섬은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에 속한다. 남쪽에서부터 총 7개의 작은 무인도로 이뤄져 있고, 섬들이 늘어진 해역을 통칭해서 칠산바다로 부른다.

영광을 상징하는 칠산도는 팽이갈매기 외에도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번식지로 보호받고 있다.

칠산바다를 옆에 끼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환상



의 드라이브 코스인 백수해안도로의 지명 '백수(白岫)'는 해발 351m 구수산에서 유래됐다.

구수산 봉우리 수는 일백(百)개에서 허나가 모자란 아흔아홉개로 부족한 부분이 아쉬워 일백 백자 대신 흰 백자를 사용한 것이 지명으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백수해안도로는 영광군이 '멈추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노을 관광지 조성사업과 동백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이중훈 기자 jylee@kwangju.co.kr

## 신안군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 국민지원금

신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804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생활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1년 8월31일 이전 자격 보유자로, 24일 지급일 이후 자격 취득자는 9월 중순 지

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입금되고 있는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오는 24일에 지급된다.

복지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등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